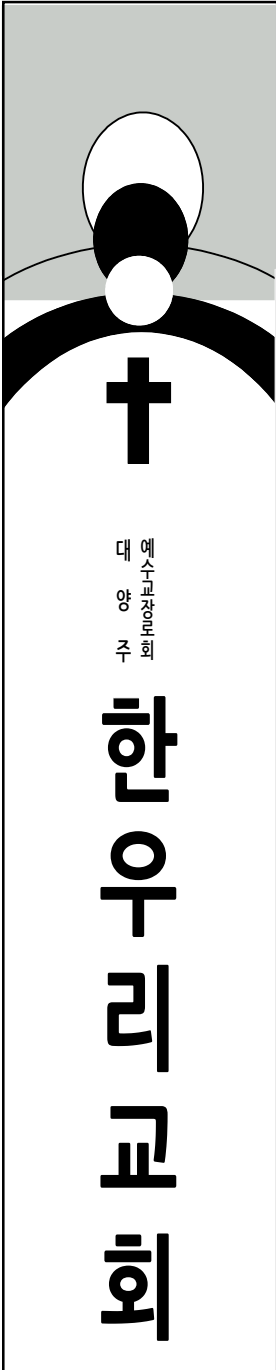


가르치는 교회▪전파하는 교회▪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8월 4일(수)

수요찬양예배

8월 8일(주일)

18기 사역 훈련반 개강

8월 15일(주일)

새생명 축제 발대식

8월 22일, 29일(주일)

온라인 예배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남우택 목사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곤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새찬 406장) 다 함 께
- 봉헌 및 배정석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벤전 3:8-9 사 회 자
- 찬 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시온 찬양대
- 말 씬 그리스도인과 지혜 시리즈 10 남우택 목사
함께 복을 누리는 지혜
- 찬 양 주 품에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문채훈 권사 2부 임상규 장로 3부 감승기 장로 4부 김하은 청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계 21:1-8

제목: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기도: 권정호 집사 (다음 주 기도: 장태용 집사)

설교: 김진영 목사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오늘 주일(29)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 경계령 중, 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30분에, 수요예배는 저녁 7시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3. 주보 6면의 가정모임교재를 활용하여 주일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4. 온가족이 함께 매일 가족들과 함께 모여 "복있는 사람"으로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한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오늘의 목상 바로가기** 링크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해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

온라인 헌금시 협조 및 주의사항 안내

1. 온라인 헌금시 반드시 한우리 교회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는 참조하시고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헌금은 원활한 헌금정리를 위해 아래 ASB계좌로만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Account Name : Hanouri Korean Church
Account Number : 12-3109-0139907-00
3. 송금시 아래 샘플 예시를 보시고 본인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Particular	Code	Reference
02 Iran	01 Tithe	Jang Semoon
목장번호는 주보참조 (목자들은 목침들에게 전달)	십일조 01 Tithe 주일헌금 02 Sunday 감사헌금 04 Thanks 구제헌금 05 Relief	IRD 등록 이름 또는
청년부번호 : 90 목장미소속 : 99	선교헌금 06 Mission 비전헌금 08 Vision 부활헌금 10 Easter 목적헌금 53 Nominate	헌금봉투에 기입해 온 기존과 동일한 이름

4. 송금 후 기입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여러 헌금을 한번에 송금하셨을 경우 아래 이메일로 알려주시거나 재정부 장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이메일 : hanourifinance@gmail.com 담당장로 배정석 021-189-1700

한우리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Covid19) 감염예방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정책에 따라 한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경계령 기간 동안 주일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와 한우리TV를 통해 1-4부까지 정해진 시간에 온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1. 예배드릴 장소를 미리 깨끗이 정돈합니다.
2. 먼저 컴퓨터 및 영상예배 기기를 적당한 자리에 설치하여 준비합니다.
3. 전화기는 내려놓고, 핸드폰은 반드시 무음 상태로 전환합니다.
4. 온 가족이 예배시작 10분전에 자리를 잡고 평소처럼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옷차림, 성경책, 노트 등)
5. 영상예배시 답답을 삼가하고 진행되는 예배순서를 충실히 따릅니다.
6.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 봉헌시간에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음에 예배당에 올 때에 헌금합니다.
7. 예배 시각에 맞추어 주일예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교육부서, 양육과정 및 교회사역

- 각 교육부서별 온라인 예배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령 중 교육부서 수요모임은 쉽니다.
- 양육과정과 교회사역은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새생명 전도 축제

"아름다운 동행"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리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 목장, 일반성도, 교육부서별 새생명 전도 축제
- VIP 초청일자: 9월 28일(화)

교우동정

■ 합심기도

- 교회의 환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계령 중에,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품에

Reuben Morgan

Still

1. 주 품에 품으소서
 님 안에 나 거하시리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 능력 나 잠잠히 말네

거친 파도 날향해와도 -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 잠잠하게 - 주를 보리라 - 2. (주)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빛	1 북한개성	배정석	0211891700	우리	34 로템나무 통가	배대일	02112327817
	2 이란	장세문	0211188526		35 캄보디아 늘푸른	고현숙	021996653
	3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021473018		36 월드파크스탄	손보영	021380366
	4 가나	이광일	0212179303		37 그레나다늘푸른	박기만	021411699
	5 오사카	김택원	0220806738		38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021569056
	6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021556934		39 월드모로코	윤수정	0272008546
무지개	7 중국무지개	이성열	0274573211	참빛	40 가데스바네아	신규식	021417756
	8 몽골	서준열	0274067769		41 에벤에셀 MercyShips	이민수	021810072
	9 섬나	나중엽	021386202		42 태국사랑	김지연	0210316041
	10 오클랜드	장태용	0224695511	43 제주한라	이상용	021821190	
	11 모스코	노희영	0274308322	성결	44 오병이어	최병한	0212136995
엘림	12 탄자니아	김승권	0272302692		45 베트남비전	최성현	021885318
	13 이집트	박진석	021356818	임마누엘	46 필라델피아푸른 최형만(임상규)	021575905	
	14 푸켓주의지팡이	곽은선	02102711230		47 Kia Ora	이경현	02102750654
15 칠레파타고니아	이근식	021779958	48 솔로몬제도		송현호	02102954933	
민임	16 산토알파	조기동	02102370987	화평	49 감비아	김규영	0220299838
	17 에티오피아	유진성	0212133414		50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021677132
	18 일본	손동욱	0212043531		51 느헤미야	이정석	021868075
	19 러셀	안응진	0211821185		52 예루살렘	박경남	0274325524
	20 LA	정두런	0211365161	53 히엘 필리핀	한진호	0272710948	
	21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02102529797	코람데오	54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0211282102
	22 노스쇼어	김주환	021488541		55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021575899
사랑	23 아베스	김인배	021759380		56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021399603
	24 인도네시아	채제섭	021424199	57 통가	송경순	02102562581	
	25 평양, 연변 과기대	김주일	0212951530	58 미얀마	신동명	021719167	
소망	26 수단로고스	김성국	0272714894	약속	59 피지	조종면	0275325423
	27 하얼빈푸른	김영현	0211721138		60 바나바	김종국	021654688
	28 예멘	형재홍	02102945114		61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021524896
다윗	29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0212627967	자유	62 한국다음세대	정민혁	021630912
	30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0274711446		63 베다니	이강용	021977942
	31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0211063498		64 베트남	김형석	021453862
32 익투스북한	박경배	0211705296	65 말라위		여운영	0225439531	
33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0212168531	66 인도원달라		신교석	021393307	
				67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02102701990	

교구 담당 교역자

1 교구	빛 초원, 무지개 초원, 엘림 초원	김진영 목사
2 교구	믿음 초원, 사랑 초원, 소망 초원	이요한 강도사
3 교구	다윗 초원, 우리 초원, 참빛 초원	안현수 목사
4 교구	성결 초원, 임마누엘 초원, 화평 초원	김민재 강도사
5 교구	코람데오 초원, 약속 초원, 온유 초원	최영두 목사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산다면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공동체 내에서도 갈등하며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를 줍니다.

1. 당신이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솔직히 나누어보세요.
2.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수준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3. 복을 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4. 부당한 취급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에 대해 함께 정리해보세요.
5. 이번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세요.

<p>세 계</p>	<p>“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을 피하리이다” 산불·가뭄·폭염·홍수… 올해 ‘잔인한 여름’ 끝날 줄 모른다</p>
	<p>올 여름 곳곳에서 산불과 가뭄, 폭염,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촉발한 기상 이상 현상이 점점 더 자주, 강도 높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테네시주 중부 험프리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17인치(431.8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지난 11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치솟았고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등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장기간 계속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수백 건의 대형 산불로 1천400만ha 이상이 소실되었고 막대한 양의 연기가 3천km 이상 떨어진 북극까지 사상 처음으로 도달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는 온난화로 치명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출처:연합뉴스)</p>
<p>뉴질랜드</p>	<p>“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주리지 아니하리라” 소비자물가지수 10년내 최고 코로나19가 생활비 상승의 커다란 원인제공</p>
	<p>뉴질랜드 헤럴드는 최근 통계청과 IRD의 자료를 사용해 오클랜드에서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렌트비는 2019년 2분기 주당 555달러에서 올 2분기 591달러로 6.5% 올랐고, 식료품비는 주당 396달러에서 417달러로 5.3% 상승했다. 기름값은 같은 기간 94달러에서 96달러로 2.1% 올랐고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주당 641달러에서 708달러로 1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p> <p>ANZ의 핀 로빈슨(Finn Robinson)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가 생활비 증가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세계적인 운송 문제와 공급 차질 등으로 뉴질랜드와 같은 작은 경제에서는 더욱 비싸게, 더욱 늦게 상품을 수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공급 문제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됐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내년 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열방을 돌보아 주옵소서.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뻗게 하셔서 속히 도움을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 [뉴질랜드]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 경제회복이 속히 되게 하옵소서. • [환우를 위해] 모든 치료과정마다 잘 이기고 견뎌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온전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8월 봉사위원 안내

현금 위원	온라인 예배	
안내	새가족부	
차량 운행	3부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4부	온라인 예배
주방친교실 점심봉사 (12시-2시)	9월12일/ 온라인 예배	
	9월26일/ 추후 공지	
평생교육원 점심봉사	8월31일/ 방 학	
	9월07일/ 추후 공지	

현금
영수기

십일조/ 고광천 김효경, 김민재 채한나, 김용태 오수연,
김인성 이은혜, 김태성 양혜진, 김택만 맹향심, 김희정
구옥이, 박경배 허주원, 박정호 구 진, 방은경 강성배,
안현수 이하나, 안혜익 곽은선, 오정훈 권지애, 유정원
김미라, 유진성 배현아, 임상혁 방 진, 전성운 이성숙,
정 호 서승현, 정민혁 백송미, 정재일 유진선, 조용준
성백춘, 조종면 정은아, 최석우 송은경, 최영두 이한나,
고현숙, 권호남, 박현민, 선금임, 선승연, 송유민, 안상경,
안은미, 이광원, 이선영, 이성미, 이성은, 전혜린, 조용근,
허건우, 허진희, 허채림, 황복희, Jason Diane, MR D
JUNG, serina seo, SONG C, Sun Chuan-Yen

감사헌금/ 박경배 허주원, 이요한 허민영, 정재일 유진선,
최석우 송은경, 황용선 임현주, 신현욱, 이지은

선교헌금/ 권오건 이연희, 고현숙

비전헌금/ Alpha pro

구제헌금/ 정 호 서승현, 정재일 유진선, 최석우 송은경,
이성미

(인터넷 बैंक 헌금은 8월 21일(토)까지 ASB로 입금 확인)

섬기는 이들

교회안내

담 임 : 남우택 목 사(021-64-9191) wwtnam@gmail.com

전 임 : 안현수 목 사(021-0863-7987) pastorpaulahn@gmail.com

 최영두 목 사(020-4165-0384) animal02@daum.net

 김진영 목 사(027-214-1103) ryan0691@naver.com

 이요한 강도사(022-077-1004) jleewithyou@gmail.com

 김민재 강도사(020-4011-7176) minjai1004@gmail.com

협 동 : 박태수 목 사(021-516-100) ptsnz0412@hanmail.net

교 육 : 서승현 전도사(021-543-456) brandasuhnz@gmail.com

■ 선교사지원 ■ 후원사역

- ▶ 강민숙 (일본) ▶ 강원준 (인도네시아)
 - ▶ 구성균 (WEC 선교) ▶ 전재우 (네팔)
 - ▶ 김주만 (태국) ▶ 오석재 (인도네시아)
 - ▶ 신성주 (라트비아) ▶ 홍영숙 (T국)
 - ▶ 양승봉 (베트남) ▶ 장세중 (이슬람사역)
 - ▶ 원천희 (바누아투 부족선교)
 - ▶ 이소복 (시에라리온) ▶ 김자선 (필리핀)
 - ▶ 정현규 (키르기스스탄)
 - ▶ 바누아투 신학생 장학 후원
 - ▶ 권순영 (A국) ▶ 배형근 (과테말라)
 - ▶ 허영근 (마오리) ▶ 박중근 (통아)
- 교회 지원
- ▶ 네피어 시온교회
 - ▶ 예닮교회(박성훈) ▶ 진달래교회(허재구)
- 기독교 기관 후원
- ▶ 네 Family ▶ 장대현학교(탈북청소년)
 - ▶ 인터서브 한국본부(조샘)
 - ▶ 뉴질랜드 밀알선교회 ▶ 연변과기대
 - ▶ 남태평양 컴퓨터선교회(박태수)
 - ▶ 코람데오신학대학원 ▶ 복음의전함
 - ▶ One Church NZ Trust
 - ▶ Touch Family (하종석)

교회연락처

교 회 ▶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Ph) 442-1457,1481

우 편 주 소 ▶ P.O. Box 101033 North Shore, Auckland Fax) 442-1458

목 사 관 ▶ 82 Maurice kelly Rd. Milldale, Auckland

전 자 우 편 ▶ hanouri@hanouri.com

Home Page ▶ http://www.hanouri.com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00 3부 오후 12:00 4부 오후 2:00	본 당	주일예배 및 모임 안내			
			사랑의 나라	주 일 경오 12:00	사랑부실	
수 요 예 배	수요일 오후 7:30	본 당	유아 기쁨의 나라	주 일 오전 10:00	비전홀	
			유년 꿈의 나라	주 일 10:00	수 저녁 7:15	느헤미야홀
새 벽 기 도	화 - 금 새벽 5:30	본 당	초등 약속의 나라	주 일 10:00	수 저녁 7:15	느헤미야홀
목 장 모 임	주 중 목장별		목장별	비전의 나라 주니어	주 일 11:30	수 저녁 7:30
한 우 리 반	주 일 오전 11:30	느헤미야홀	비전의 나라 시니어	주 일 11:30	수 저녁 7:30	느헤미야홀
제 자 훈 련	주일 오후, 금 오전 목 저녁	느헤미야홀	청년 부흥의 나라	주 일 오후 2:00		본 당
사 역 훈 련	주 일 오후 3:30	조이홀	평생 교육원	화요일 오전 10:30		비전홀
목 자 훈 련	주 일 오후 1:35	조이홀	수요 중보기도	수요일 저녁 8:40		본 당
계 좌 번 호	ASB 12-3109-0139907-00 (HanouriPresbyterianchurch)					